

22년 호흡의 힘...방민자·정승원 전남 첫 메달 쾌거



전국장애인동계체전 혼성 휠체어컬링 동메달 획득
방민자, 동계체전 메달 이어 밀라노 올림픽 정조준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방민자·정승원 조가 장애인동계체전에서 전남의 첫 메달을 따냈다.

전남은 지난 26일 강원도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혼성 휠체어컬링 2인조 WC-E (선수부)경기도와의 4강에서 아쉽게 8-9로 졌지만, 27일 3-4위전에서 충남이 기권하면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정승원은 “목표는 금메달이었는데 아쉬움이 크다. 내가 7엔드에서 실수해 흐름이 넘어갔다”며 “이겼다고 생각했던 경기라 더 아쉽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계 체전에서 론볼 선수로도 활동 중인 두 사람의 강점은 ‘호흡’이다.

두 사람은 휠체어 컬링이 론볼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된 뒤 본격적으로 배움의 길에 접어들었다.

방민자와 정승원은 컬링을 배우기 위해 2004년 자비로 컬링의 성지인 캐나다로 건너가 종목의 기

본을 다졌다.

정승원은 “(방민자와) 같이 맞춘지 벌써 22년째다. 전국 시도 중에도 이렇게 오래 한 조가 거의 없다”며 “하계 종목에서 쌓은 팀워크가 컬링에서도 그대로 연결된다”고 호흡의 비결을 전했다.

컬링이 경기 중 대화가 많은 종목으로 알려져 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짧고 굵다.

정승원은 “시합할 때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며 “내가 ‘민자야’ 한마디 하면 (민자는) ‘정신 똑바로 차려’라는 뜻으로 알아서 알아듣는다”고 웃었다.

방민자도 “저는 상황마다 ‘왜 그래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한다”면서 “경기 중 샷이 어긋나거나 흐름이 흔들릴 때 서로를 바로 세우는 (승원의) 짧은 외침이 결국 팀을 살린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이 만든 팀워크는 ‘눈빛’에서도 드러난다.

정승원은 “같이 운동을 한 세월이 길다 보니 뽀할지, 컨디션이 어떤지 눈빛으로 안다”며 “한 사람

이 흔들릴 때 뒤에서 잡아주는 게 팀이다”고 말했다.

방민자 역시 “앞뒤 호흡이 맞아 원하는 샷이 나왔을 때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고맙다”고 했다.

동계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방민자는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방민자는 오는 3월 2026 밀라노코르티나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다. 올림픽 준비에 주력했던 그는 이번 대회를 위해 전남 선수단 일정에 집중했다.

그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한 달 동안 체전에 맞춰 준비했다. 대회가 끝나면 2월 1일부터 다시 대표팀 훈련에 들어간다”며 “대회는 긴장감의 연속이다. 기회가 닿는 순간순간 자체가 훈련이다. 메달이라는 특별한 각오 보다는 체력과 부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고 올림픽을 앞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전남은 현재 방민자·정승원의 메달 포함 28일까지 총 4개의 동메달을 수확했다.

빙상 동호인부에서 박정철(남자 500m DB), 유승협(남자 500m IDD·성인부), 장수민(여자 500m IDD·소년부)이 각각 동메달을 보냈다.

/강릉·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전남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방민자(왼쪽)·정승원이 지난 26일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 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컬링팀 제공>

‘시속 150km’ 중력과 싸우는 선수들...빙판을 지배하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썰매

한국,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출전
스켈레톤 정승기, 새로운 에이스 부각

썰매 모양과 조종하는 방법이 레이싱카와 비슷해 ‘얼음 위의 슈퍼카’로 불리는 봅슬레이는 동계올림픽 3대 썰매 종목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됐다.

봅슬레이는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열린 제1회 동계 올림픽에서 당당히 5개 종목 중 하나로 치러졌다. 썰매 종목으로는 유일했다.

남자 2인승, 4인승만 치러지던 봅슬레이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에서 여자 2인승을 처음 도입했다. 이어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서 모노볼(여자 1인승) 종목이 더해져 금메달은 총 4개가 됐다.

선수들의 역할은 철저히 ‘분업화’돼 있다.

2인승을 예로 들면 앞의 선수를 파일럿, 뒤의 선수를 브레이크맨이라고 부른다.

파일럿은 썰매 안쪽에 달린 로프를 이용해 썰매를 조종한다. 최고 속도가 시속 150km에 육박해 파일럿의 섬세한 컨트롤은 가장 중요한 요소다.

경기는 1300~1900m 길이의 트랙을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 트랙 길이는 1445m다.

올림픽에서는 이틀에 걸쳐 4차 시기까지 경기를 치러 기록을 합산한다.

한국은 이번 대회 봅슬레이 전 종목에 출전한다. 남자 4인승에는 파일럿 김진수(강원도청)와 김선욱, 이건우(이상 강원연맹), 김형근(강원도청)으로 이뤄진 김진수 팀, 그리고 파일럿 석영진(강원도청)과 이도윤(한국체대), 전수현(강원연맹), 채병도(가톨릭관동대)로 꾸려진 석영진 팀이 출격한다.

남자 2인승에도 김진수와 석영진, 두 파일럿이 나선다. 김형근과 채병도가 각 팀의 브레이크맨으로 뒤에 앉는다.



한국 스켈레톤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른 정승기의 스타트 장면.

/연합뉴스

여자 종목에는 김유란(강원도청)이 파일럿으로 2인승과 모노볼에 모두 출전하며, 2인승 브레이크맨으로는 전은지(경기연맹)가 가세한다.

길이 1m 안팎의 판 모양인 비교적 단순한 썰매에 의지하며 트랙에 몸을 내던지는 스켈레톤은 위험한 만큼 짜릿한 종목이다.

최고 속도가 시속 130km에 이르지만, 안전장치는 턱 보호대가 달린 헬멧, 팔꿈치 보호대 정도에 불과하다. 몸이 썰매에서 떨어지지 않게 지지해주는 것은 양옆의 핸들뿐이다.

스켈레톤에는 제동, 조향 장치가 따로 없다. 선수가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조종하기에 유연성이 중요하다.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윤성빈이 아시아 썰매 사

상 첫 금메달을 따내면서 한국은 스켈레톤 강국으로 급부상했다.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른 정승기와 베테랑 김진수(이상 강원도청)가 남자 스켈레톤에 출전하며, 여자 스켈레톤에는 홍수정(경기연맹)이 나선다.

뒤로 누워 달리는 루지는 썰매 3종목 중에서 가장 빠르다. 최고시속이 150km를 넘기도 한다.

소수점 아래 두 자릿수까지 기록을 재는 봅슬레이, 스켈레톤과 달리 1000분의 1초까지 따져 순위를 매기는 이유다.

루지에는 남자 1인승과 2인승, 여자 1인승과 2인승, 팀 릴레이 5개 금메달이 걸려있다.

한국에서는 여자 1인승의 정혜선(강원도청)이 유일하게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연합뉴스

‘바둑 신들의 전쟁’ 맥심커피배 16강 확정

신진서·박정환·김은지 등 안착

‘입신’(入神)들의 ‘수담’(手談) 맥심커피배 16강 진출자가 모두 가려졌다.

27일 오후 송파구 마장로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7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32강 마지막 두 대국 결과 박민규 9단과 김정현 9단이 16강행 막차를 땀다.

앞서 32강에서는 부동의 랭킹 1위 신진서 9단이

한승주 9단을 격파했고, ‘디펜딩 챔피언’ 이지현 9단은 나현 9단을 꺾고 16강에 올랐다.

랭킹 2·3위 박정환·변상일 9단도 16강에 합류했고, 여자 랭킹 1·2위 김은지·최정 9단도 32강을 통과했다.

동서식품이 후원하는 입신최강전 우승 상금은 7000만원, 준우승 상금은 3000만원이다.

제한 시간은 시간 누적(피서) 방식으로 각자 10분에 추가시간 30초다.

/연합뉴스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6 배구인의 밤’ 행사에서 한국 여자 U-16 배구 국가대표팀이 최우수단체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U-16 여자 대표팀, 배구인의 밤 최우수단체상

45년 만에 아시아 제패

지난해 16세 이하(U-16) 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여자 배구 청소년 대표팀으로 45년 만에 아시아 정상 정복을 이룬 대표팀이 ‘최고의 별’로 인정받았다.

대한배구협회는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6 배구인의 밤’ 행사를 열고 지난 한 해 한국 배구를 빛낸 주역들을 시상했다.

U-16 대표팀은 최우수단체상을 받았고, 주장으로 팀을 이끈 손서연은 최우수선수상(MVP)을 받았다.

26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여자체육대상에서 신인상을 받았던 손서연은 배구인의 밤 시상식에서도 트로피를 받았다.

손서연은 “코치님, 감독님, 동료들, 응원해준 분

들 덕분에 받은 것”이라면서 “열심히 해서 올해 열린 U-17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U-16 대표팀을 지휘한 이승여 감독은 최우수지도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협회는 이날 유공자 97명과 14개 팀에 대해 시상을 진행했다. V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세터 중 가장 높은 순위로 지명된 여자 선수에게 수여하는 ‘희화세터상’과 올해 신설된 ‘장윤희아웃사이드히터상’ 등이 유망주들에게 전달됐다.

이 밖에도 해천선생장학금, 한국여자배구국가대표선수회 장학금, 대한배우회 장학금, 상임심판 꿈나무장학금 등이 배구 꿈나무들에게 수여됐다.

행사에 앞서 열린 2026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25년 사업 실적 및 결산 심의, 정관 개정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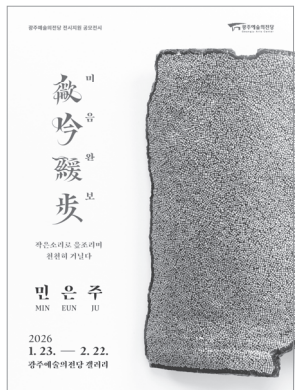
즐거웁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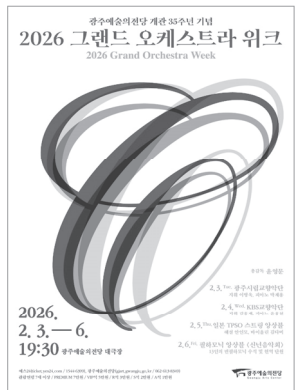
문의 062)613-8235



광주예술의전당 전시지원 공모전시
미술완보 : 민은주 개인전

일시 : 2026-01-23(금)~2026-02-22(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예술의전당 개관 35주년 기념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위크

일시 : 2026-02-03(화)~2026-02-06(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6

